

한국 근대 문학사의 현장과 개신교선교사 - 헐버트, 존스, 게일이 증언한 한국어문학 전변의 제양상

이상현*

요약

한국의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 근대문학 창작의 주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국 근대문학이 형성되던 현장에서 한국인과 함께 한국어로 소통하며 살아간 내지인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한국문학 논저를 집필했던 '선교사 검학자' 3인(게일(James Scarth Gale(奇一), 1863~1937),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訖法), 1863~1949), 존스(George Heber Jones(趙元時), 1867~1919))의 증언을 주목했다. 즉, 한국 근대문학 작품을 접촉하지 못했던 한국 개신교선교사, 헐버트와 존스가 남긴 기록들이자 한국학적 업적들, 한국 근대어문학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게일의 한국문학 담론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증언 속에 담겨 있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을 묘사해보고자 했다.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 속에서 한글이라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미래이자 한국 근대문학을 상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그들의 전망에 부합된 한국어·문학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한국어·문학을 외국어·문학으로 인식하며 이 현장에 참여했다.

주제어: 한국 개신교선교사, 한국 근대문학사, 게일(James Scarth Gale(奇一)),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訖法)), 존스(George Heber Jones(趙元時))

* 부산대 교양교육원 부교수

목차

1. 머리말
2. 한글이라는 민족문화의 유산과 한국문학의 미래: 헐버트, 존스의 한국학 저술을 통해 본 19세기 말 ~ 20세기 초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
3. 한문 고전어의 쇠퇴와 한국 근대어문학의 등장: 계일의 한국문학 담론을 통해 본 1920년대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 근대 문화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그들이 한글 운동과 근대 교육에 끼친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 두 영역에 있어서는 선구자이자 개척자였다. 하지만 본고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근대문학과 관련해서는 어떠할까? 물론 창작자와 사소설 중심의 문예적 지평을 넘어 한국 근대문학을 바라본다면,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도 충분히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일이 모든 성과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근대 한국학과 번역(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제출된 다기하고 중요한 연구성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그 공과를 엄정하게 살펴 본다면, 이는 한글 운동의 선구자, 근대 교육의 개척자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그들의 과거 위상과 동일한 업적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근대문학과 관련된 개신교 선교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까닭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동시에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문학(사)과 관련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실적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신교선교사들이 남겨놓은 저술 목록,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 서구인의 한국학더 엄밀히 말하자면 서양어로 작성된

한국학 논저들을 집성한 원한경(Horace Horton Underwood(元漢慶), 1890~1951)의 서목을 펼쳐보면 조금 더 사정을 이해하기 쉽다. 한국문학이라는 주제항목을 구성하는 저술의 양 자체가 실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¹⁾ 한국 문학에 관한 저술을 출판할 수 있는 한국 개신교선교사이자 서구인의 존재는 그만큼 많지는 않았던 셈이다. 나아가 이 주제항목을 구성하는 개별 논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로 한국의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영역들 예컨대 속담, 설화, 혹은 민요 등에 대한 번역물이 다수이다. 물론 한국문학론 혹은 한국의 서적들에 관한 논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고소설 혹은 한적에 대한 소개나 한시문에 대한 번역물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양인들이 집성한 한국학 관련 논저들 속에 한국의 근대문학은 어디까지나 배제된 연구대상이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근대문학이 형성되던 현장 속을 살아갔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이 자체가 함의하는 바 역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서구와 한국이 근대에 관계를 맺게 한 역사적 실상이자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 사이의 접촉점이자 교차점은 결코 일방향적이지 않은 매우 복합적인 관계였다. 이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 앵글로색슨 기독교가 한국에서 중국 기독교와 한문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 종교와 만나 접촉점을 찾고 대화하면서 한국 문화에 접목되어 새로운 한국적 기독교라는 신품종을 만든 통합의 역사”²⁾였기 때문이다. 개신교선교사를 근대문학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어문학과 그들이 교차하며 보여준 현장의 모습, 그 단면을 묘사해볼 수는 없을까? 이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자 목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2장에서는 한국의 근대문학이 출현하기 이전 개신교선교사, 특히 험버트(Homer Bezaleel Hulbert(訖法), 1863~1949), 존스(George Heber Jones(趙元

1) H. H. Underwood,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 1931, pp.39-45.

2)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새물결 플러스, 2020, 14-15면.

時), 1867~1919)의 한국학 논저들을 그리고 3장에서는 근대문학을 체험했던 게일(James Scarth Gale(奇一), 1863~1937) 선교사의 한국문학담론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을 그려 나가보고자 한다.³⁾

2. 한글이라는 민족문화의 유산과 한국문학의 미래: 헐버트, 존스의 한국학 저술을 통해 본 19세기 말 ~ 20세기 초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

□ 원한경의 목록 속 한국문학관련 논저의 저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 개신교선교사 중에서 한국문학론 자체를 집필할 수 있는 인물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문학을 논할 수 있는 전문가 자체가 매우 드물었던 셈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왕립아시아학회 한국 지부 학술지(*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창간호(1901) 지면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핀 발표문 그리고 이에 대한 논평문을 제출했던 게일, 헐버트, 존스는 당시 한국학 분야에 있어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에 놓인 선교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한국문학을 포괄한 한국학 논저를 집필한 인물들이었고, 당시 대표적인 선교사 겸 학자였기 때문이다.⁴⁾

3) 줄고(「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과 개신교선교사」, 『민족문학사 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95~130면)에서는 게일의 한국고소설 직역과 이중어사전 출판이라는 두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 속에 놓여 있었던 개신교선교사의 모습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게일 개인이 아니라 개신교선교사 집단으로 지평을 확장하고, 미검토 자료를 추가했다. 더불어 개신교선교사들의 한자를 비롯한 한국어 인식을 고찰한 논문(이상현,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어와 한자」, 『어문연구』 4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25~159면), 게일이 인식한 20세기 한국어문학장의 모습을 재구해본 논문(이상현, 「한 개신교선교사 바라본 20세기 한국어문학장과 번역」, 『춘원연구학보』 20, 춘원연구학회, 2021, 81~110면), 이 두 연구성과를 반영했다.

4) 19세기 말 ~ 20세기 초 한국개신교 선교사의 한국학 집필활동과 논저에 대해서는 『탐험가,

세 사람 중에서 19세기 말 ~ 20세기 초 가장 왕성한 집필활동을 보여주었던 인물은 헐버트였다. 그의 한국문학론은 그만큼 각별한 의의를 지닌 논저였다. 헐버트는 당연히 한국의 근대문학에 관한 논저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한국소설론(1902) 속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대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영어가 서양 소설에 관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쓰이듯이, 한글이 한국 소설에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다. 디포를 비롯한 서양의 선구자들이 영어소설에 공헌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조만간 한국을 위해 한글로 쓴 명작소설을 탄생시키기를 바란다.⁵⁾

헐버트가 이 글에서 논하고 있던 대상은 한국의 고소설이었고, 그의 논고는 학술적으로 볼 때 문헌학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하며 영성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헐버트는 한국 고소설을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문학에는 미달된 매우 열등한 문학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의 서술양상을 보면, 당시 외국인들이 보여준 한국문학에 관한 폄하의 시선과는 완전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그의 논고 속에서도 한국 고소설에 투사된 서구인들과 동일한 근대적 문학관념은 존재한다. 더불어 근대적 문학 관념에 부합되는 한국의 소설 작품을 대면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정황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한국에서 “소설 쓰는 일을 인생의 업으로 삼고, 소설 쓰는 일

외교관, 선교사: 서양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소명, 2022)에 수록된 이영미의 논문 2편(「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들」,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 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연구」)을 참조했다. 게이, 헐버트, 존스 세 사람의 대표적인 한국문학론 논저는 이진숙 외 역주,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1-2, 박문사, 2017에 선별되어 수록되어 있다.

5) H. B. Hulbert, 김동진 옮김,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 436면(H. B. Hulbert, “Korean Fiction”, *The Korea Review* 1902. 7).

로 자신의 문학적 명성을 쌓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정식적인 소설 작가를 대면할 수 없었다. 또한 “내용 전개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하며, 최소 몇 장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상상의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는 상당량 문예성을 지닌 작품도 만나볼 수는 없었다.⁶⁾

즉, 그에게 한국의 근대소설, 근대문학은 도래하지 않은 문화현상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투영된 헐버트의 예지적이며 한 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헐버트는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한국 근대문학의 열개와 그 윤곽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점이 가능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그가 한글이라는 문화유산이 상징해주는 바, 한국민족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과 역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함께했던 조선왕조의 발명품을 소개한 논고(1899)를 펼쳐보면, 헐버트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인류 문명의 진보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여러 작은 국가들처럼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낸 국가였다. 유교를 근간으로 한 신왕조 창조의 필요성으로 비롯된 ‘이동식 금속활자’,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 속에서 발명된 ‘철갑선’, ‘현수교’, ‘폭팔탄’, 한자가 지닌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한글’이 그것이었다. 물론 그가 보기에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품들은 세계와 한국에 큰 이익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또한 한국인이 만든 이 발명품에 담긴 정신은 계승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과거로 퇴보했으며, 역사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수많은 발명품은 기록 보관소로 사라져 버렸다.⁷⁾

헐버트의 논고는 한국이 만국교차로에 놓이게 된 역사적 현실을 반증해준다. 20세기 초 한국 문명의 존재가 서구권에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스스로의 문명을 서구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록을 프랑스의교관이자 동양학자였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저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헐버트를 비롯한 다른 서양

6) 위의 책, 430-431면.

7) 위의 책, 206~218면(“Korean Inventions”,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1899. 6).

인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한국학 전문가였다. 쿠랑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한국관을 안내하는 소책자에서, 대한제국이 자신의 문명을 전시하며 또한 유럽의 사상과 문화, 서구 문명을 수용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를 서구인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겸양의 교훈’(une leçon de modestie)이라고 평한 바 있다.⁸⁾ 쿠랑, 험버트 논의를 겹쳐보면 20세기에 이르러 한국과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이 심화, 유통되고 있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쿠랑은 그의 저술 『한국서지』(1894)에서, 그가 한국의 도서를 고찰하며 알게 된 한국 민족문화의 우수함과 그 가능성을 잘 밝혔다. 그것은 “아름다운 도서 인쇄”,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자모(字母)의 완성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쇄활자 구상”과 같은 모습들이다. 그는 한국의 입지가 만약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⁹⁾ 쿠랑의 이러한 평가 중에서, 험버트와 공유되는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쿠랑이 당시 태종 3년(癸未, 1403년) 동으로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출했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밝힌 “세계 최초의 인쇄활자 구상”이라는 한국의 문화적 공적이다. 험버트도 이러한 공적을 소개했던 셈이다. 험버트, 쿠랑 두 사람 모두 한국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험버트가 한국문학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글을 비롯한 한국 민족문화유산이 지닌 역량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쿠랑, 험버트 두 사람의 언어 그 자체와도 깊이 관계된다. 즉, 험버트가 한국의 근대문학을 상상할 수 있게 해

8) M. Courant, 파스칼 그러트:조은미 옮김, 「샹 드 마르스의 한국관」, 『프랑스 문헌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살림, 2009, 262-265면(“Le pavillon coréen au Champ de Mars, Souvenir de Séoul, Corée”, Paris, Exposition universelle, 1900.)

9) M. Courant, 이희재 옮김, 『한국서지』, 일조각, 1994, 73-74면.

준 전제조건이자 근본적인 계기는, 사실 한국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언어의 존재였다. 그것은 험버트의 모국어 즉, 영어라는 학술어이자 문학에 덕분이기도 했다. 험버트가 상상한 한국어, 한국문학의 미래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서구어, 서구문학의 현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역사의 보편적 법칙이 놓여 있었으며 서구와 동양 양자 사이의 유비관계가 존재했다. 즉, 이를 축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은 중국과 한국, 한자(한문)와 한글 양자의 관계를 라틴어와 영어와의 관계에 대비하는 논의들이었다. 험버트에게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글은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수한 표음문자’였다. 그가 보기에 한글은 세계의 다른 어떠한 문자보다 진보한 형태의 문자였다. 점점 더 단순한 형태로 진화하는 문자의 진화법칙에 있어 한글은 형태상 그 진화의 정점에 놓인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자였기 때문이다.¹⁰⁾

㉔ 험버트가 전망한 한국어문학의 미래에 부합된 방향으로, 19세기 말부터 한글은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이 발전과정에 동참했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의 미완성 유고인 한국교회사 강의록(1917)에는, 한국어의 발전과정을 함께 했던 선교사들의 공적 그리고 그들이 한글운동의 개척자로 존재하던 초기 현장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¹¹⁾ 그는 그와 함께 했던 한국 교회사 속 선구적인 선교사들을 먼저 소개한다. 그는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헤론(John W. Heron, 1856~1890), 엘러즈(Annie Ellers Bunker, 1860~1938),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1858~1902), 스크랜튼(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 선교사를 첫 번째 그룹으로 지정하며, 이들을 “어떤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는 자”, “지리적 선구자”라고 명명했다.

10)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629-661면을 참조.

11) 이하의 서술은 G. H. Jones, 옥성득 옮김, 『한국교회형성사』, 흥성사, 2013, 6-7장을 참조.

그리고 이들의 동료이자 뒤를 이은 선교사들을 “한국인의 생활, 언어, 역사, 문학 속으로 들어간 다른 개척자들”이라고 평했다. 사실 한국에 관해 공부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역시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라는 차원으로 한정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선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존스는 한국어에 들어가는 길에 가장 선두에 선 인물이며 이 길을 개척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게일을 지목했다. 게일은 이러한 존스의 평가에 걸 맞는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게일은 이후 선교사들의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을 제공해준 공구서 즉, 가장 중요한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3차례 걸쳐 간행한 『한영사전』은 이러한 존스의 평가에 가장 부합한 성과였다. 게일은 프랑스어가 가능했기에 파리외방전교회가 만든 한국어학서를 참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스는 게일의 사전편찬과정이 『한불사전』을 단순히 번역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작업은 개인적인 연구와 공부를 통해 새롭고 완전한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게일이 발행했던 문법서(『사과지남』)는 한국에 온 모든 선교사들이 실제로 한국어의 문어와 구어에 관한 지식을 얻어가는 관문이였음을 밝혔다. 존스는 이러한 한국어학서를 공유했던 당시 모든 선교사들이 사실 한국어의 권위자였음을 술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국어학서는 단순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근대 한국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존스의 서술 속에는 선교사들의 이러한 수행적 맥락이자 개신교선교사들이 한글을 매개로 시도했던 근대 문체 기획의 초기적 현상이 잘 새겨져 있다.

존스는 개신교선교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던 초기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파리외방전교회의 문법서와 사전만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은 당연히 어려웠다. 더불어 당시 한국어를 교수할 한국인 어학교사

가 부족했다. 이에 영어를 공부했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는 초보에 불과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문자적으로 옮기 시작했다. 언더우드와 편찬한 이중어사전(1890)의 「서문」에는 그가 1888년 여름까지 “한국어와 영어 각각 만개 정도의 단어만을 그 동의어와 더불어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¹²⁾라고 당시 이러한 작업의 흔적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구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단어를 수집하려 하자마자 더 노력을 기울여 보려는 어떤 의욕도 사그러지게 된다”¹³⁾라고 서술된 1897년 계일의 『한영사전』 「서문」의 기록이 잘 말해준다.

존스가 보기에, 이처럼 구어를 수집하고 기록화하는 과정은 한글 운동의 선구자라는 개신교선교사의 치적이자 공헌과도 깊이 관련된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실천이었다. 즉, 한국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성서와 개신교적인 교리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어 자체에 끼친 매우 중요한 영향이기도 했다. 이는 “언문으로 알려진 한글을 구속(救贖)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존스는 한글이 선교사들의 발견 이전에는 동면상태였는데, 선교사가 한글이 지닌 학습과 쓰기에 있어 지니고 있는 유용성과 편의성을 알아보고 활용했음을 강조했다. 성경과 기독교 문서가 한글로 출판되자 한국인 역시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10년대 중반 당시에는 신문, 교과서, 일반 문학서적이 한글로 출간됨을 이야기했다.

존스는 한국인들에게 이처럼 한글이 보편화되기 이전, 개신교선교사들이 대면했던 초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준다. 그것은 한국어를 균질화된 언어로 정초하는 작업으로 한글 정서법 그 자체를 확립하는 과정과 관련

12) 황호덕,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2, 박문사, 2012, 43면(H. G. Underwood, “Preface”, 『韓英字典』,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1890).

13) 위의 책, 92면(J. S. Gale, “Preface”, 『韓英字典』,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1897).

된다. 존스의 증언에 따르면 철자법이 부재했기에 한 단어가 한 책에 12개의 다른 표기로 기록되기도 했다. 다시 언더우드와 게일이 편찬한 19세기 말 사전의 「서문」을 펼쳐보면,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어려운 정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한글의 철자가 순전히 개개인의 발음에 의거하는 데, 그 양상이 균질하지 않고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말했다. 그리고 『전운옥편』의 한자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해주었음을 이야기했다.¹⁴⁾ 게일 역시 “구어로 발음되는 소리”와 “책자형태의 철자법”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일은 양자 사이의 중도를 따랐음을 밝혔다.¹⁵⁾

언더우드와 게일이 한글 철자법의 규범을 찾는 과정은 서로 동일한 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실천 속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두 사람 모두 통일되고 규범화된 한자음을 확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존스는 이러한 한글 정서법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옥편 속 한자음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의 2부, 한자사전 속 한자음이 이후 사전 편찬에 중요한 지침과 규범이 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존스는 그들의 전도문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했다. 사전이 규범을 만들어주었다면, 전도문서들은 그 활용의 사례들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철자법이 있는 첫 한글 출판물인 성경은 철자법의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띄어쓰기 체계의 도입 등을 통해 한국인의 가독성을 높여 주었다.

3] 그렇지만 존스의 회고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존스의 설명과 달리, 개신교 선교사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를 접했고 그에 부응하는 한국어학서를 생산한 주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

14) 위의 책, 44면.

15) 위의 책, 93면.

문이다. 천주교 선교사 즉, 파리외방전교회가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시기적으로만 본다면 개신교 선교사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한글을 개척한 선구자였다. 쿠랑은 그의 저술 『한국서지』(1894)에서 “천주교의 도입은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류를 탄생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근간을 살펴보면, 천주교선교사 역시 한글의 재발견이라는 공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쿠랑의 말처럼,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고 종교적 저술은 누구의 손에나 닿게 하여야 하므로, 바로 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었기 때문이다.¹⁶⁾

파리외방전교회는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하며 독보적인 차원의 한국어 학서를 편찬했으며, 쿠랑이 정리한 서적 목록이 보여주듯이 다수의 한글 전도문서를 발간했다. 그렇지만 ‘한글운동의 선구자’라는 공적은 천주교에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와 관련하여 파리외방전교회가 편찬한 한글 전도문서의 한계를 쿠랑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천주교 서적은 한 두 권을 제외하고는, 중국 책을 번역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그 기술용어는 중국적 표현으로서 한글로 단순히 전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⁷⁾

왜 쿠랑은 이 천주교 한글문헌 속에서 한계점을 지적했던 것일까? 천주교 전도문서는 개신교선교사들이 발행한 문헌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당시 한국인들의 언어적 직관들 예를 들자면 그들의 한글 문식력 자체를 상정해 보는 행위, 특정 한자 표현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토착화에 되었는지를 판별하는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와 개신교

16)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72면.

17) 위의 책, 72면.

선교사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양자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바를 주목하는 편이 생산적인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쿠랑이 느낀 이 낯선 외국어와 같은 한국어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도 중국에서의 번역사례 즉, 중국어 표현을 매개로 그들의 뜻을 한국어로 표현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는 선교라는 차원에 제한된 실천이 아니었다.

게일의 회고(1917)에 따르면 개신교선교사들도 중국 이중어사전에 등재된 한자어를 통해, 한국어에 근대어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는 한국어에 새로운 사상과 종교적 관념을 표현할 어휘를 기입하고자 한 그들 나름의 시도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전은 소유한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나아가 한국인이 설사 그러한 사전류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한국어의 언어발달에 미친 영향력은 미비했을 것이라고 게일은 추론했다. 왜냐하면 이는“몇몇 새로운 사상과 정신적 관념의 의미를 전달가능하게 할 가장 적합한 어휘를 찾고자, 중국의 이중어사전을 찾아보고 적절한 어휘를 찾았을 때 뿔 듯이 기뻐하다가도, 해당 어휘에 대한 전달의 어려움을 재고하기도 했던 외국인의 사례에서도 자주 증명”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에게 이 낯선 어휘는 설사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에 더욱 근접한 것이었다. 개신교선교사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이 한국인에게 서구적 문명이 담긴 언어를 전파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인이 새로운 어휘를 주체화하고 수용하는 행위가 더욱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다.¹⁸⁾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 선교사의 문서선교 사업이 파리외방전교회와는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의 문서선교는 종교와 선교사업으로만 제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18) J. S. Gale, "Modern Words and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 Magazine* 1917.7., p.304.

국민들과 근대 교육과 학문이라는 영역을 공유했다. 쿠랑은 1891년 8월 27일 험버트의 『사민필지』가 출판되자, 이에 대해서 구한말 프랑스공사관이었던 플라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4)에게 이 책자에 대하여 보고했다. 그는“험버트 선교사가 우주 형상지와 지리에 관한 책을 한국어로 막 출판했습니다.“이 책은 태양계에서의 지구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지구의 기원에 관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내놓고 있다. 등등.” 이 책에 대한 광고는 10줄 이상 이런 어조로 지속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 때에는 그들도 모든 학술원 사람들처럼 박식해지겠죠. 저는 이 흥미로운 책자를 구입해서 파리로 부칠 생각입니다”¹⁹⁾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문 영역에서의 공유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이라는 정부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작업과도 공유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신교선교사는 어디까지나 한국인, 한국사회의 동향에 맞춰 한국어 글쓰기의 영역과 지평을 확장했다. 그들은 순한글 전용이라는 이상이자 이념을 고수하지 않았다. 1897년 2월 5일 쿠랑은 플라랑시에게 당시 한국의 외무부 공문들이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새로운 문체의 견본으로 공문 사본 두 세 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²⁰⁾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1898년경 국한문체 성서를 발간하고자 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이 기획은 한글전용이라는 순수한 이상에는 어긋나는 기획으로 여겨졌기에 채택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자 이 국한문체 성서의 발간 기획은 결국 개신교선교사들에게 수용된다.²¹⁾

1901년 발간한 쿠랑의 『한국서지』(보유판)에는 이를 가능하게 했던 새

19)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편, 『콜랭드 플라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소명출판, 2017, 223-224면.

20) 위의 책, 270-271면.

21) H. G. Underwood, 이만열·옥성득 옮김, 『언터우드 자료집』 III,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146-147면.

로운 변화가 잘 드러난다.²²⁾ 쿠랑은 “한국의 자주성은, 특히 새로운 교육 용도서에 적용되어 새로운 문체와 새로운 문자의 구성 또는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서적들은 학무아문에서 출간된 교과서류였다. 또한 관보와 법령집, 신문에도 이 문체가 활용됨을 지적했다. 쿠랑은 과거 “한자 혹은 한글을 사용하였는데, 이 두 문자는 단지 아주 적은 숫자의 작품에서만 혼용되어 왔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헌에서는 “한자를 단어들의 語根에, 한글을 속사나 동사의 어미”에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이것이 일본의 사례를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쿠랑이 보기에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개선 과정을 통해 교육의 확산, 한글문학의 창조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로 된 학술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한글 문법서”가 등장한 사실을 주목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발전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쿠랑은 한국 외부에서 이러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점은 개신교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20세기 초 매체와 공론장 속에서 한국의 관리 및 중산층이 국한문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또한 이 새로운 형식의 문체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반포하는 신문, 한국 관청의 공식적인 문건들 또한 교육부가 출판하는 모든 책의 기본적인 문체란 사실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동향에 함께 동참했다. 당시 성서번역 위원이었으며 한국어를 가장 깊이 이해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국한문체가 당시 한국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이에 맞춰 국한문 성경 출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보기²³⁾)에, 한글은 당시 기독교 교회의 필요조건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성

22) M. Courant, 이희재 옮김, 앞의 책, 707면.

23) 이하 서술은 H. G. Underwood, 이만열·육성득 옮김, 앞의 책, 149면에 의거하도록 한다.

경공부반에서 적지 않은 인물들이 한문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한자와 한글의 상호조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동일한 음가를 지녔지만 다양한 의미를 지닌 한 글자로 된 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자의 상형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의심이 한글로 표기하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당시 한자는 시각화된 문자로써 여전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문 자체만으로는 과거 한자한문의 영역 안에 포괄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와 문건을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이는 한국의 최고학자라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국한문체는 한국 지식인층의 전교를 위한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한자, 한문을 한글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여전히 인식하는 서양인들에게, 언더우드도 국한문체 성경역본이 “새로운 성경번역본”이 아니라 “새로운 표기법이자 인쇄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세기 초 국한문체가 새로운 위상을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도 마찬가지였다. 게일이 20세기 초에 편찬한 『유몽천자』를 통해, 국한문체로 영미소설 작품을 번역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와 『그리스도 신문』을 함께 살펴보면, 한글과 한자를 결합하며 활용하는 매우 다른 층위의 글쓰기 방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말 『천로역정』을 통해 보여준 순한글 전용이라는 기획과는 변별되는 문체기획이었다.²⁴⁾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개신교선교사의 한글 운동 그들의 문서선교사업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그들이 ‘한글 운동의 선구자’라는 측면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한국인, 한국사회의 동향과 흐름에 잘 부응했다는 측면이 더욱 중요했다.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의 활동은 한국에서 한글 문

24) 『유몽천자』의 이러한 국한문체 글쓰기 양태에 대해서는 이상현이준환임상석 편, 『유몽천자 연구』, 역락, 2017, 17~189면을 참조.

어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그들이 참조해야 될 한국의 출판물은 1920년대에 비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준이었다. 1920년대 개신교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생산하는 보다 많은 저술을 참조해야 했다. 나아가 한국의 근대지식인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19세기 말부터 한글 발전의 흐름에 동참했던 서양인 선교사들에게도 매우 낮은 차원의 새로운 언어였다.

3. 한문 고전어의 쇠퇴와 한국 근대어문학의 등장: 제일의 한국 문학 담론을 통해 본 1920년대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

□ 개신교 선교사를 비롯한 서구인들은 그들의 한국학 단행본에서, 한국을 근대적인 학술담론 안에서 표상했다. 이 점은 한국문학에 있어서도 동일했다. 한국의 전근대 문학에도 그들은 근대적 문학개념을 투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의 학술적 실천이 그들의 학술개념에 대응되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의 근대문학의 부재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양의 학술개념과 한국이 접촉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는 이후 한국어로 된 근대 학술개념이 출현하며 서구어와 대등해지는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존스가 그의 교회사 강의록에서 밝힌 개신교선교사가 한국어 끼친 또 다른 중요한 공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²⁶⁾ 그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어의 어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한국어 어휘는 한국인의 구어 혹은 일상적인 회화 차원에서

25) 황호택이상현,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1, 박문사, 2012 1부 3장에서, 서구적 학술개념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관계가 유비-등가분기로 변모되는 양상을 묘사한 바 있다.

26) 이하 서술은 G. H. Jones, 앞의 책, 7장을 참조.

의 어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거 한국인이 상상할 수 없었고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종의 서구적 개념어 즉, 신어이자 학술어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것이었다. 그는 개신교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기독교 개념과 근대 서양의 과학 및 교육의 내용으로 풍부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보기에 성경 번역과 기독교 문서의 창조는 한국어에 새로운 사상 세계를 소개했으며, 그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수행된 서구적인 교육은 한국어에 새로운 어휘의 영역을 보충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인의 새로운 근대 생활에서 대두된 언어의 필요에 따라 보완된 이러한 노력이 한국어에 25,000 단어 이상을 추가하게 만들었다고 술회했다.

존스는 1909년 이후 한국을 떠나 재외의 공간에서 선교를 이어나간 인물이었지만 그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만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어가 급격히 전변되는 징후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고 실제 한국어 어휘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력을 펼쳐보면, 그는 기독교 사상과 개념을 한국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전도문서를 번역(『미이미교회문답』)했으며 신학지식을 소개할 목적으로 잡지(『신학월보』)의 창간을 주도했다. 그의 실천은 근대 서양의 학술개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인의 근대 교육을 위해 교과서(『국문독본』)와 영한사전을 출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에 걸맞게 그가 1914년 편찬한 매우 중요한 영한사전의 「서문」에서 20세기 초 한국어의 급격한 변화의 동인들이 잘 서술되어 있다.²⁷⁾ 당시의 새로운 한국어 즉, 한국의 근대어와 더불어 유입된 새로운 사상과 제도에 전통적인 옛 문명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이 변화를 촉진한 최초의 커다란 동력은 기독교 신앙과 함께 들어온 근대교육이었으며, 정부 개혁으로 인한 대규모의 전환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의 진술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렇듯 새로운 한국어의 출현 이면

27) 황호덕, 이상현 편역, 앞의 책, 114-115면(G. H. Jones, “Preface”, 『英韓字典』, Japan: Kyo Bun Kwan, 1914).

에 쇠퇴하는 한국어의 존재가 함께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어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두 개의 층위로 분기되고 있었다. 그의 언급 속에서 옛 한국어의 잔영이 제시된다. 이 한국어는 “공맹 시절의 오래되고 고결한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한 칭호와 용어가 가득했으며, 요원한 과거 속의 어느 높은 인물이 되살아나 돌아왔다 해도” 현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였다. 하지만 1910년대 이 과거의 한국어는 “대부분 문학적 혹은 정치적인 기념물로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존엄한 영역에서만 아니라 행정, 사법, 재무 등 정부의 모든 조직, 상업 분야와 사회생활 속에서, 새로운 한국어가 과거의 한국어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양상은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²⁸⁾ 그는 이 변화와 자신이 편찬한 사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국어가 풍성해지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도처에 학교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현대적 사상의 다양한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등가어를 문의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려는 시도이다. 등가어를 제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자유로이 이용하였으며, 거기서 쓰인 용어가 한국 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작업들은 한국에서의 작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오늘의 한국은 이웃나라들이 맺은 학술적 결실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²⁹⁾

존스는 한국어가 서구적인 학술개념으로 풍성해지는 과정과 양상을 매우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바라본 셈이다. 그는 이 전변의 장후 자체를

28) 위의 책, 114면.

29) 위의 책, 115면.

체감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과 한국의 근대문학을 한국에서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반면 게이일은 이 문화적 현상을 오랜 시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근대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개신교선교사 게이일의 한국문학론(1923)에서 한국 근대문학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자 변별점이었다.

존스에서 게이일로 시선을 옮겨보면, 이 문명교체의 과정과 이를 반영한 한국어의 전환은 모든 한국인에게 그렇게 낙관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역사는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역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게이일은 1910년대로 향하고 있던 전환기 한국의 상황을 말하기 위해, 한 한국 교인 가족의 비극적 일화를 이야기한다. 그는 어머니와 부인, 세 아이를 둔 한 가장이 폭우 속에 평양을 찾아가 강을 건너가는 길에, 익사해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이 교인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에 알려야 했다. 가장을 잃은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이러한 가슴 찢어지는 장면을 1천 5백만 가족들에게 확대시키고 그들의 자그만 탁자를 이 황폐한 반도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이 우울한 시기를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³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국화,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을사조약, 정미7조약의 체결, 고종의 폐위와 같은 사건이 그것이었다. 대한제국은 그의 말처럼 구멍 뚫린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게이일은 이 현실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이러한 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쳐 나가야 하는지, 그것의 옳고 그름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고 또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지에 관한 문제는” 그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권’을 상실한 한국인에게 그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다.³¹⁾ 물론 이는

30) J. S. Gale, 신복룡 옮김,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36-37면(Korea in Transition, 1909).

31) 위의 책, 41-43면.

정교분리를 전제로 선교를 진행했던 개신교 선교사다운 어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로 구분되는 양자의 영역을 확연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또한 양자의 영역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대신해줄 수 있는 관계일까?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게일은 자신의 저술(1909)에서 ‘한국사회의 이상과 성령의 열매, 예수의 큰 계명과 같은 ‘개신교의 교리’를 비교해 보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게일이 일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한 이광수(李光秀, 1892~1950)의 「신생활론」(『매일신보』, 1918.11.11.)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吾人の 根本 되는 民族的 理想이 무엇이며 耶蘇敎의 敎理와 이 理想과의 관계가 어떠 하나’라는 이광수의 질문과도 상통되는 바였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연구와 종교라는 두 영역의 관계도 이와 상당히 유사했다. 성서번역이라는 영역에만 한정할 지라도 그의 한국문학연구라는 실천은 개신교 선교라는 종교적 지평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게일은 어느 선교사들보다도 한국인의 말과 글 속에서 새겨져 있는 원시적 유신일 관념을 찾아내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³²⁾ 그것은 일차적으로 성서번역과 관련된 것이었다. 개신교의 유일신을 한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휘를 찾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한국인들과의 대화 속 하나님이라는 어휘, 한문 고전 속 天, 神과 같은 한자어에 담긴 개념을 주목한 행위였던 셈이다. 이는 그가 「번역의 원칙」이라는 미간행 원고(1893)에서 스스로 밝힌 바, “성서 번역자들이나 기독교 문건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도 표현할 수 있는 기존의 어휘가 한국어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³³⁾는 소신이 담긴 실천이기도 했다.

32) 이에 구체적인 고찰은 이상현, 『문혀진 한국문학사의 사각: 외국인의 언어·문헌학과 조선후기-식민지 언어문화의 생태』, 박문사, 2017, 5장을 참조.

33) 유영식 편역, 『착훈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2, 도서출판 진흥, 2013, 321면(J. S. Gale, “The Principle of Translation”, 1893)

즉, 그에게 선교와 한국문학 연구,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 실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문학 연구는 선교로만 한정될 수 없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이 잃어버린 정치적인 시민권을 대신하는 또 다른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을 함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연구라는 실천은 한국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문학의 정전화 과정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 실천은 문학작품에 대한 선별/배제 및 의미화 과정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 단위의 한국 민족성 혹은 정신 그리고 한국의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종교와 한국문학이라는 두 영역의 분리는 그가 자신의 한국체험을 회고하며 자신의 이력을“宗教事業보다 育英事業에 힘쓰려하고” “朝鮮文學을 不充實하게나마”연구했다는 슬회한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난다.³⁴⁾ 그의 이 진술 속에서 개신교 선교와 근대교육, 한국문학 연구는 엄연히 분리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1923년 게일이 내놓은 한국문학론에는 그의 오랜 한국체험과 한국문학연구의 성과가 총체화되어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인이 남겨 놓은 글 즉, 한국문학이 한국 민족의 내밀한 마음 속 음성이자 본질을 보여준다는 그의 핵심적인 관점이 새겨져 있었다. 동시에 이 속에는 그의 연구가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도 잘 드러나 있다.³⁵⁾ 게일의 한국문학 연구의 초점이 한국인의 유일한 관념 그 자체 보다 한국문학에 반영된 종교적 관념으로 전환되었던 흔적 그리고 종교에서 한국문학 그 자체로 변모된 양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모 양상에 걸맞게 게일의 한국문학론 논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자 변별점은 개신교 선교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문학에 내재된 종교

34) 奇一, 「回顧四十年」, 『新民』 26, 1927. 6.

35) 게일의 이 논문(J. S. Gale, "Korea Literatur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mosa, 1923)은 황호덕, 이상현 편역, 앞의 책, 2012, 159-16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의 학술적 연원은 이상현, 앞의 책과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153-157면·168-189면을 참조.

성이 아니라 1920년대 한국문학이 보여주는 일종의 전체상이자 혼란스러움이었다. 그것은 이 논문에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거론되며 상정된 한국문학 전체의 열개였으며, 이는 선교와 분리된 한국문학 그 자체였다. 이규보의 한시문과 『홍길동전』과 같은 고소설, 오상순(吳相淳, 1894-1963)의 「힘의 숭배」와 같은 근대시, 『천리원정』이라는 소설이 거론된다. 그가 보기에, 양자는 사이 좋게 ‘공존하는 흐름이 아니었다. 1894년 과거제도의 폐지 이후, 한국인의 고전 연구는 중단되었으며 유교는 사망했고 국가라는 배는 저 유서 깊은 닻의 사슬을 놓쳐버린 채 표류했다. 즉,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것은 사실 도래하지 않았다. “일본 혹은 서구적인 관념들, 신세계의 사상들이 그 존재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채, 마치 무선전선들과 같이 허공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계일은 당시 사라지는 옛 것들, 특히 한학의 자취를 쉽게 놓지 못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천자문』에서 『주역』에 이르는 기나긴 목록의 책들을 끊임없이 연마하며, 과거를 준비하는 지식층, 그들의 삶에 충만했던 고전적 사유와 이상들을 그는 그리워했으며 고평했다. 이는 상하층을 아우르며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바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작문법이 등장했으니 이러한 옛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근대 작가들의 주장을 계일은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㉒ 계일은 한국의 근대어문학이 형성되던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증언한 개신교선교사였다. 그의 논저를 펼쳐보면, 한국의 근대어문학에 대한 그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어찌 본다면 새로운 양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매우 보수적인 시선을 보여준 셈인데, 이조차도 한국의 근대문학작품보다 근대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계일은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어와 문학에 대해서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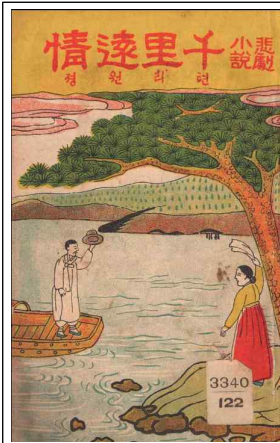
36) 황호덕, 이상현 편역, 앞의 책, 163-164면.

한 언급을 남긴 개신교선교사였다. 그 이유는 그의 이력과 관계된다. 그는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한국에서 활동했으며, 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 관련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의 근대문학 비판에는 성서번역, 한국문학 공부를 통해서 형성된 그의 이상적인 한국어문체와 한국어관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의 견해는 19세기 말 한학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근대문체기획 즉, 20세기 초 한국인의 국한문체 기획에 조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한국어문관에 반하는 근대문학이 형성되던 현장을 그는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준 셈이기도 했다.³⁷⁾

한국의 한문 전통을 한국 민족이 보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국문화의 골수로 인식하던 그의 한국문학관은 그의 이력 속에도 잘 드러난다. 게일은 자신의 번역적 이상을 성서와 영미문학 번역에도 관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번역원칙과 의견을 달리하는 선교사들의 견해를 수용하지 못하고 1923년 개역자회를 사임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1925년 국한문체 성경을 그의 한국인 조사들과 함께 발간했다. 이러한 성서번역 사업을 마친 후 그는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다수의 영미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물을 출판했다. 이는 당시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그 나름의 비판적인 대응방식이었다.³⁸⁾ 잠시 살폈던 그의 한국문학론(1923)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하나 더 있다. 그가 한국의 근대문학 작품을 접촉한 경로가 어떠했고 어떠한 작품을 검토했는지가 그의 논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37) 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72, p. 68 ; 이상현, 「100년 전 한국문학 세계화의 꿈: 개신교선교사 게일과 한국의 고전세계」, 『한국문학논총』 76, 한국문학회, 2017, 98-133면.

38) 이 점에 대해서는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130-145면 ; Ross King, 「게일과 조선예수교서회(1922-1927): '구제'로서의 번역과 한국어·문학의 근대성」, 김용규·이상현·서민정 편, 『번역과 횡단: 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현암사, 2017.



최근 종로에 있는 가장 큰 서포를 지나며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즉시 『천리원정(千里遠情)』이 건네졌다. 그것은 잘 채색된 겉표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해변에서 손수건을 훑날리고 있는 한 소녀에게 배 위의 한 남자가 왼손으로 모자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이들의 두 번의 만남은, 처음에는 평양의 대동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는 서울 서대문 밖 홍제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며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결혼하여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들이 울릉도에 오름으로써 소설은 그 흥취를 더하는데, 혹 불어닥친 바람이 그들을 집어삼켜 바다로 데려갔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이 작품은 문학에는 전적으로 무지한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형편없는 작품이다. 『홍길동전』과 같은 옛 이야기는 잘 숙련된 저자의 손에 의해 잘 쓰여졌지만 오늘날의 것은 그렇지 못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책이 처음부터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서양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최신의 것으로 행세하려 하는 데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외국인들은 하고자 했던 데 비해 매우 적은 신자들만을 얻었으나, 반면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온 한민족이 우리의 길을 앞 다뒤편하고 있는 것이다.³⁹⁾

게일이 서울 종로에서 구입한 책자는 딱지본 대중소설이었다. 그는 상기 소설 작품의 표지를 소상하게 잘 묘사했다. 이후 게일이 제시하는 작품의 줄거리 개관, 문체, 작품 내용 등과 대비해볼 때, 당시 대중성을 지닌 베스트셀러라는 사실과 함께 이 표지야말로 이 작품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특징이기도 했다. 즉, 이 소설 작품을 펼쳐보면 근대소설문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즉, 그와 그녀와 같은 인칭대명사, “-었다”와 같은

39) 황호덕, 이상현 편역, 앞의 책, 167-168면 ; 해당표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最新式悲劇小說) 千里遠情』, 신명서림, 1924에서 가져온 것이다.

동사연결어미, ‘-的, -上’등의 일본식 한자어 접미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고소설 어투에 더욱 근접했다.⁴⁰⁾ 그랬기에 게일은 이 소설의 문체가 고소설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소설 작품들처럼 이 작품의 작가가 명시되어 있지 못한 사정 역시도 게일의 비평에 일정량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이 작품을 통해 발견한 근대 소설적인 측면은, 상기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서양적이며 근대적인 문물을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모습이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게일은 한국의 근대 작가가 창작한 예술성을 지닌 작품을 접하지 못했던 것일까? 다행히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서울의 서점에서 소설 『천리원정』을 구입하고, 이를 한국의 고소설과 대비한 상기의 서술을 1922년 12월 14일 게일의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⁴¹⁾ 이 보고서에는 게일의 한국문학론 논저에 『천리원정』과 관련 대목의 경우와 달리, 수록되지 못하고 배제된 또 다른 내용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게일이 서점에서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소설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문예지를 함께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1922년 『개벽』 9월호에 대한 게일의 논평이 보인다. 독일 외무부 장관 라테나우(Walter Rathenau, 1867~1922)와 그의 장례식에 대한 특집기사(「故「라텐아우」國葬當日의 伯林」) 그리고 불가리아의 노동운동을 언급한 기사(「勃牙利의 國民皆勞主義에 對한 一考」)를 소개했다. 여기서 후자의 기사는 매우 읽기 난감한 글이라고 평했다. 한 기사(「朝鮮民族發展의 新根據」)의 전문이 압수당한 사실을 밝힌 잡지의 특고를 옮겼다. 잡지(「綠陰涼話」)에 수록된 이

40) 1920년대 게일의 번역실천을 보아도 이렇듯 ‘-(으)나라’, ‘-(으)리라’, ‘-느니라’, ‘-(으)느니라’, ‘-는지라’와 같이 소멸되고 있던 고풍의 동사 어미 형태가 보인다. 더불어 이와 함께, ‘(있)느즉’, ‘-(으)니고로’, ‘-(으)르새’, ‘-(으)매’, ‘-(으)므로’, ‘-거늘’ 등의 동사 연결어미가 문장 속에 삽입되어 긴 무종지문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 일체의 문장부호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Ross King, 앞의 글, 623면을 참조)

41) J. S. Gale, "Report of Literary Committee(C.L.S)"(1922.12.14.) ;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J. S. Gale, "Fiction", *The Korea Bookman*, 1923. 3.

야기들이 저급하다고 평가했으며, 3편의 번역소설(「湖水의女王」, 「沙漠안에情熱」, 「하플레트」)이 있음을 말했다. 이 중 영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헵릿』에 대한 번역 작품에 관해서 소소한 언급을 남겼다. 이 소설은 세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처럼, 작품의 사상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번역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개벽』 소재 기사를 소개하는 방식은 과거 게일이 『매일신보』의 기사를 한국어 학습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제시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상대적으로 이광수의 「신생활론」을 요약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에 더더욱 근접했다. 선교사들은 근대 잡지를 통해 한국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주목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보여줄 근대 잡지에 대한 게일의 독해를 더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윌리엄 커(W. C. Kerr(孔韋亮), 1875~1951) 라는 개신교선교사의 근대 잡지에 대한 논평을 *The Korea Bookman*이란 정기간행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⁴²⁾ 커는 이 연재기사의 첫 번째 글(1922.12)에서 근대 잡지와 같은 출판물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세계의 현재 사상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렇듯 한국인들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 이들의 책무라고 여겼다.

물론 게일과 커는 서로 다른 번역관과 한국어관을 지니고 있었다. 커가

42) 『개벽』을 비롯한 그의 한국 근대잡지에 대한 논평 양상에 대해서는 황호덕, 이상현, 앞의 책, 221-243면; 황호덕, 「사전과 번역과 현대 한국어문학, 고유한 근대 지성의 출현과 전과 번역의 황혼」,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2016, 29-36면; 이상현,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과 개신교선교사」, 『민족문학사 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118-125면을 참조; 커 선교사에 대한 정보와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다만 1917년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사역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일본어에 대한 문식력을 지닌 인물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해리 로즈,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 출판부, 2009, 39면.)

남긴 글을 보면, 그는 1917년 이광수의 한국기독교에 관한 비판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교회가 지적으로 성장해야함을 주장하기도 했다.⁴³⁾ 이광수의 「신생활론」을 번역하여 소개했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던 게일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성서번역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게일은 원문에 대한 축자적(literal) 번역이 아니라, 당시 한국인 독자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문학적(literary)번역을 추구했다. 게일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독자였으며, 한국화된 번역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커는 이러한 게일과는 반대의 입장을 보여준다.⁴⁴⁾ 그는 게일과 달리 1920년대 한국의 근대어문학은 서구일변문학에 오염된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서구적인 원본을 보다 잘 재현해 줄 미래이자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줄 수 있는 번역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커는 게일보다 한국 근대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게일과 커, 두 사람 모두 당시 한국의 근대어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이 지녔던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다. 당시 한국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언어로 옛 한국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근대 세계의 사상과 표현들을 담고 있었다. 이 언어 속에는 서구적 개념에 대한 중역의 과정 즉,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매개로 번역의 과정이 놓여 있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한국어는 당시 강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개신교선교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언어적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문학작품에 관해서도 이는 동일했다. 『조선문단』의 출현과 관련해서 게일, 커 두 사람이 공유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커는 『조선문단』에 대해 다

43) 李光洙, 「今日 朝鮮 耶蘇教會의 缺點」, 『青春』, 11, 1917. 11(최주한, 하타노 세츠코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 II, 소나무, 2015, 402-403면); 孔韋亮, 「목사의 사상적 생활」, 『神學指南』 1(3), 1918, 81면.

4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130-145면.

음과 같이 언급했다.

잡지계에서는 새로운 한국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 3년 동안 여러 종의 순수 문예지가 탄생했다. 그 대부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이광수 선생이 주재하는 『조선문단』은 1924년 8월 이래 8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생장』(Growth)은 올해 1월부터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조선문단』은 투고되는 시들 중 최고작을 뽑아 비평을 곁들여 게재함으로써 시 쓰기를 장려한다. 『생장』은 같은 방식으로 시와 소설 모두를 다룬다. 한편 『개벽』은 『개벽』과 다른 잡지들에 실린 시와 단편소설에 대한 독립적인 비평을 게재함과 더불어 비평가들에 대한 비평을 싣고 있다.(1925. 6)

게일의 또 다른 보고서(1925. 1. 16)를 통해서 게일의 한국문예지에 대한 독서체험을 발견할 수 있다. 게일은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조선문단』을 읽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⁴⁵⁾ 이 보고서에는 그의 한국문학론 논문에서는 배제된 내용, 문예지와는 또 다른 중요한 대상이 존재한다. 그것은 근대 작가가 창작한 근대 소설이며, 이에 대한 게일의 독서체험이다. 그는 이광수의 새로운 소설이 연재된 사실을 주목했다. 그가 보기에 이 작품은 도덕적으로 다소 의심스러우며, 매우 혼란스러운 대화로 가득 차 있으며, 온갖 종류의 구어가 가득차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이 작품이 상대적으로 잘 쓰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였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당시의 작문들과 이광수의 소설은 달랐기 때문이다. 게일은 이광수의 문장과 대비되는 잘못된 사례로 『여자의 아동기로부터 성년기에 이르는 변화』라는 책을 예시했다. 이광수의 작문과 달리 이 책은 ‘합니다’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 책은 매우 훌륭하고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일

45) J. S. Gale, “Reports of the Literary Committee”, 1925.1.16. 이 자료의 존재와 중요성을 Ross King, 앞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보기에 그렇지 못했다. 그는 영어 단어 Kiss를 “키수”로 번역하는 모습을 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솔직히 이 영어단어에 대하여 ‘입맞춤’ 혹은 ‘접문(接吻)’이란 어휘 이외에 적절한 것을 찾지 못했음을 말했다. 이 새로운 책의 이면에는 작동하는 것은 영어에 대한 모방이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계일은 이 보고서에서 당시 세 가지 방식의 한글을 활용한 작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춘향전』과 같은 고소설 문체였다. 그러나 이 문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훌륭한 문체였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가 보기에 이 문체는 근대 작가가 구현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명한 연사의 연설 방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자와 책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계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광수가 큰 효과를 본 평범한 회화체의 작법을 하나의 예로 들었다.

사실 이광수의 문장은 이 노년 선교사도 간과할 수 없는 한국어 글쓰기의 중요한 전범이었던 것이다. 계일의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접촉한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광수와 만나 차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문어가 혼란스러운 이유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이광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젊은 한생들이 쓰는 법을 모르거나 작문의 의미를 모르는 점, 영어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 등과 문제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노년 선교사가 한국의 젊은 작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이 보고서에는 새겨져 있었다. 그만큼 이광수라는 작가의 권위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실체였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계일이 남긴 마지막 경고문구가 잘 말해준다. 만약 개신교 선교사가 일반 문학인 기행문, 모험, 소설, 역사, 전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다. 그럴 경우 개신교의 영혼과 지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광수의 『사랑에 주렸던 이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만 읽게 될 미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했다. 즉, 한국 근대문학을 체합

했던 게일은 과거 헐버트가 제시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전망을 제기한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개신교선교사들의 저술 속에서 드러난 한국 근대 문학사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폈다. 물론 한국 근대문학과 관련된 개신교선교사들의 공적을 말하기는 녹녹치 않다. 한국학 속에서 한글 운동의 선구자라는 그들의 족적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들을 한국 근대문학의 창작 주체 혹은 수용 주체로는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그들이 한국 근대문학이 형성되는 현장 속을 살아간 사실을 주목했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기반 또한 한 편으로 본다면, 한국 근대어가 형성되던 그 '기원'의 현장 속 주체란 사실을 주목하고 이를 고찰하고자 했다.

현재 선행연구 속에서 주목받은 한국 개신교선교사들의 논저들, 특히 한국문학 논저를 제출했던 중요한 학자 겸 선교사'이었던 게일(James Scarth Gale(奇一), 1863~1937),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訖法), 1863~1949), 존스(George Heber Jones(趙元時), 1867~1919)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어문학이 형성되던 당시의 현장을 묘사해보고자 했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 근대문학 작품을 접촉하지 못했던 한국 개신교선교사, 헐버트와 존스가 남긴 기록들이자 한국학적 업적들을 주목했다. 그들이 한국의 한글이라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미래이자 한국 근대문학을 상상하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아가 그들의 이러한 상상력과 전망이 19세기 말 ~ 20세기 초 그들의 문서선교사업이자 한글 운동 속에 실현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 역시 한국에서 진행된 국한문체의 기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주목했다. 즉, 그들

역시 한자와 한글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체를 구성하고자 했던 한국 근대어문의 형성과정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실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한국 근대어문학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게일의 한국문학 담론을 살펴보았다. 게일은 1920년대에 이르는 한국어가 보여준 급격한 전환의 모습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 속에는 한문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한국문학이 쇠퇴하고 새로운 근대 근대어문학이 출현하는 현상이 오롯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19세기 말부터 그가 함께 살아오며 체득했던 그의 한국어문학관에 의거하여, 한국 근대문학에 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한국 근대문학은 오늘날과 같이 '자연화'된 실체가 아니라, 생성되는 과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대상이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대면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선교사들이 간과하거나 도외시킬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인식했다.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체험여부와 상관없이, 헐버트, 존스, 게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학은 하나의 외국어이며 외국문학이었다. 그들 모두 영미문학으로 대변되는 서구문학의 보편적 진보의 과정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한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이 재편되던 한국문학사의 현장은 이러한 발전과정을 보여줄 일종의 징후이자 전조였던 셈이다. 또한 그들은 이 전변 과정 속에 놓인 번역이라는 언어횡단적 실천과 혼종성의 존재를 주목했다. 물론 지금까지의 고찰만으로는 한국개신교선교사들이 생산한 관련 자료를 총괄적으로 살피지는 못한 한계점이 분명하다. 특히, 그들이 번역의 주체로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현장에 개입했던 사건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번역이라는 큰 연구대상을 차지하고 게일이라는 선교사 또한 한국문학만으로 한정할지라도, 그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들과 한 사람의 외국인 독자로 읽은 문학작품들이 존재한다. 텍스트라는 실제 지평 속에서 이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며, 이 논고를 갈무리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孔韋亮, 「목사의 사상적 생활」, 『神學指南』 1(3), 1918, 81면.
-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편, 『플랭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소명출판, 2017, 223~271면.
- 유영식 편역, 『착흔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2, 도서출판 진흥, 2013, 321면.
- 이진숙 외 역주, 『서양인의한국고전학 선집』 1, 박문사, 2017, 3~456면.
- 이진숙 외 역주, 『서양인의한국고전학 선집』 2, 박문사, 2017, 5~528면.
- 최주한, 하타노 세츠코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 II, 소나무, 2015, 402~403면.
- 황호덕, 이상현 편역,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2, 박문사, 2012, 13~187면.
- G. H. Jones, 옥성득 옮김, 『한국교회형성사』, 흥성사, 2013, 111~174면.
- H. B. Hulbert, 김동진 옮김,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 112~436면.
- H. G. Underwood, 이만열·옥성득 옮김, 『언더우드 자료집』 III,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146~149면.
- H. Rhodes,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연세대 출판부, 2009, 39면.
- J. S. Gale, 신복룡 옮김,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36~43면.
- M. Courant, 이희재 옮김, 『한국서지』, 일조각, 1994, 1~74면 · 765~767면.
- M. Courant, 파스칼 그러트·조은미 옮김, 『프랑스 문헌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살림, 2009, 254~256면.
- J. S. Gale, "Fiction", *The Korea Bookman*, 1923. 3.
- J. S. Gale, "Modern Words and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 Magazine* 1917.7., p. 304.
- J. S. Gale, "Report of Literary Committee(C.L.S)", 1922.12.14.
- J. S. Gale, "Reports of the Literary Committee", 1925.1.16.
- H. H. Underwood,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 1931, pp. 39~45.

2. 논저

- 김용규·이상현·서민정 편, 『번역과 횡단: 한국 번역문학의 형성과 주체』, 현암사, 2017, 9~712면.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Ⅱ, 대한성서공회, 1994, 130~145면.
-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새물결 플러스, 2020, 14~761면.
- 이상현, 『문혀진 한국문학사의 사각: 외국인의 언어·문헌학과 조선후기-식민지 언어 문화의 생태』, 박문사, 2017, 5~630면.
- 이상현, 「이명의 한국학자 이익습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629~661면.
- 이상현, 「한 개신교선교사 바라본 20세기 한국어문학장과 번역」, 『춘원연구학보』 20, 춘원연구학회, 2021, 81~110면.
-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개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153~189면.
- 이상현,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과 개신교선교사」, 『민족문학사 연구』 72,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95~130면.
- 이상현, 「100년 전 한국문학 세계화의 꿈: 개신교선교사 개일과 한국의 고전세계」, 『한국문학논총』 76, 한국문학회, 2017, 98~133면.
- 이상현,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어와 한자」, 『어문연구』 4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25~159면.
- 이상현·이준환·임상석 편, 『유몽천자 연구』, 역락, 2017, 17~189면.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서양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 소명, 2022, 6~327면.
- 황호덕, 「사전과 번역과 현대 한국어문학, 고유한 근대 지성의 출현과 전파 번역의 황혼」,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2016, 29~36면.
- 황호덕, 이상현,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1, 박문사, 2012, 221~243면.
- 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72, p. 68.

<Abstract>

The Fiel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and Protestant Missionaries

Lee, Sang-hyun

Although not the primary creators, Protestant missionaries were integral observers of the evolu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engaging deeply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locals during this transformative period. This study delves into the testimonies of three notable missionary scholars—James Scarth Gale (1863-1937),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and George Heber Jones (1867-1919)—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literary discourse. While Hulbert and Jones had limited exposure to contemporary Korean literary works, Gale had firsthand experience with moder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fering invaluable insights. This paper aims to portray the nuanced landscapes of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through their diverse narratives. These missionaries unearthed the richness of national culture in Hangul, envisioning the trajec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its ensuing modernization. Moreover, their engagement in this domain was characterized by perceiv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s a foreign entity, reflecting their unique viewpoint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inguistic and literary identity.

Key words: Korean Protestant Missionary,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James Scarth Gale, Homer Bezaleel Hulbert, George Heber Jones

투 고 일 : 2023년 8월 18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